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학교자율시간’과 ‘교과용 도서’로 실천하는 인권교육 토론회

**일시** 2024. 6. 26.(수) 오후 3시 ~ 5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학교자율시간’과 ‘교과용 도서’로 실천하는 인권교육 토론회

**일시** 2024. 6. 26.(수) 오후 3시 ~ 5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학교자율시간’과 ‘교과용 도서’로 실천하는 인권교육 토론회

**일시** : 2024. 6. 26.(수) 오후 3시 ~ 5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개회 : 박병수 인권교육기획과 과장
15:00~15:10	인사 말씀 : 안성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
15:10~16:00 (각 15분)	<b>발제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b>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b>발제 2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결과 발표</b> 최은경 (경기 매원초등학교 수석교사)  <b>발제 3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b> 장경훈 (용인 동막초등학교 교사)
16:00~16:10	자리 정리 및 휴식
16:10~17:00 (각 10분)	<b>토론</b> 김자영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 최경란 (인권교육활동가연구센터 조각보 대표) 성나래 (서울 당중초등학교 교사)
17:00~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30~	마무리 및 폐회

※ 토론회 시간표 및 각 발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 안성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육은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천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모델을 개발 하였습니다.

개발된 도서가 선생님께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과정 지도서로, 학생들에게는 인권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으로 스며들어 모든 학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된 도서를 널리 알리고,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인권과목 개설을 공론화 하며,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주시길 바라며,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가 ‘교육과정으로 실천하는 인권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 **안 성 울**

# 목 차

## 발 제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 11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2.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결과 발표 ..... 29  
최은경 (경기 매원초등학교 수석교사)
3.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 47  
장경훈 (용인 동막초등학교 교사)

## 토 론

1. 토론문 ..... 63  
김자영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 토론문 ..... 67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
3. 토론문 ..... 71  
최경란 (인권교육활동가연구센터 조각보 대표)
4. 토론문 ..... 75  
성나래 (서울 당중초등학교 교사)





# 발 제

1.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2.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결과 발표  
최은경 (경기 매원초등학교 수석교사)
3.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장경훈 (용인 동막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sup>1)</sup>

이근영(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본 발제에서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본 연구자를 비롯한 공동연구진이 수행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인권교육 및 독립적인 인권 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 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발제에서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상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추진 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교과목 개설 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마련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

1) 이 글은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9870&searchCategory=&page=3&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15>)에서 보고서 원본을 다운받아 참조하기 바람.

## II.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 1.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발전

두 차례의 파멸적인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하여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p. 14).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교육의 관계에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6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26조 2항에서는 교육이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지침과 협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UN은 1994년에 ‘유엔인권교육10년’, 2004년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11년에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을 통해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침해의 예방과 보편적인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about), 인권을 통한(through), 인권을 위한(for) 교육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엄수정 외, 2021).

한편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경험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국가 수준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데, 이때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6조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한국에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전후로 기존의 학교문화에서 학생은 보편적 인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1997년에는 「교육기본법」이, 2007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인권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하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관련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권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더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했다.

## 2. 기존 학교 인권교육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교 인권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권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권교육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김자영 외, 2019; 구정화 외, 2020; 염수정 외, 2021). 학교 인권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인권교육이 특정 교과에서 다루는 학습 주제의 하나로 축소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구정화, 2018; 구정화 외, 2020; 구정화, 박새롬, 2019; 김혜진, 2018; 이선영, 권혜정, 2017). 국가교육과정은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일부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회 및 도덕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인권교육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러 학교들에서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쌍철 외(2019)는 전국의 301개교 학생 13,524명과 교사 5,886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 학교들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89.7%)하였으나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루어진다고 보고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요구하는 학생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이정연 외(2020)는 일회적이고 강의 위주의 인권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정연

외(2020)에 따르면, 경기도 교원의 거의 대부분(97.9%)이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학기당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가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이 특정 교과 중심 혹은 교과 외 시간에 진행되는 파편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일부 내용은 중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중요하지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구정화 외(2020)는 인권 문제가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인권 개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엄수정 외(2021)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학교 인권교육이 안고 있는 두 번째 차원의 한계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인권 담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엄수정 외, 2021).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포스트휴먼과 트랜스 휴먼, 전 지구적 생태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며,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향유하는 데 있어, 개인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및 기후 위기 역시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데, 생태 및 기후 위기는 토착민, 노약자, 빈곤층, 섬나라 국민, 미래세대 등 특정 집단의 존엄과 생존에 더욱 위협적이다.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국가주의, 민족주의 경향성으로 차별과 혐오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UNESCO(2022)에서도 전술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는 데 교육이 갖고 있는 변혁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며, 교육이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과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하고,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rs)이자 공동재(common goods)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독립 과목으로서의 인권교육이 갖는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 인권교육은 일부 교과나 생활교육 차원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생성된 인권 담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므로, 인권 주제를 독립적인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정화 외, 2020; 엄수정 외, 2021). 확장된 인권 개념을 토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내용 및 방법을 체계화한다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이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인권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던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시켜, 학교장이 인권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물론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인권 관련 내용 및 성취기준이 축소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장 선택 과목 개설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은 인권교육을 독립 과목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겠다.

## III.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추진 방안

### 1.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과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을 들 수 있다.

먼저 학교에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 과목 및 교과용 도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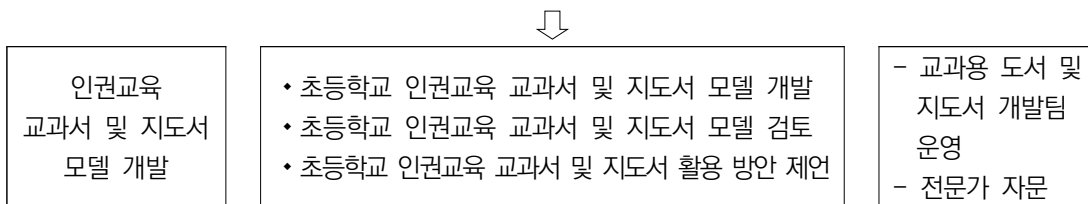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실천 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인권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권 과목 및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인권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검토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확장된 인권 개념을 반영한 인권교육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현장 교원 및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내용 체계의 실천적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을 하였는데, 전술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군을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 개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한 학기 동안 수업이 가능한 형태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구성 체제(대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단원마무리 등)에 준하여 구성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이 흥미, 재미, 유의미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 및 주요 내용과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절차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의 다양한 관점, 쟁점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li> </ul>	- 문헌조사
↓		
인권교육 현황 및 교수·학습 사례, 교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관련 현황 및 학교 인권교육 실태 분석</li> <li>• 인권교육 교수·학습 사례 및 교재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사례조사</li> </ul>
↓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개념 및 원칙 정립</li> <li>• 기존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2022 개정 교육과정 포함)</li> <li>• 인권교육 세부 영역 및 내용 구성 요소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델파이조사</li> </ul>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 2. 국내 인권교육 현황 검토

한국에서 인권교육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출범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제1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을 수립하며 5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후 제2차(2012-2016), 제3차(2018-2022) 총 세 차례 발표되었다.

2018년 발표되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을 ‘국민일반 대상 교육’, ‘학교 교육’,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개발 및 관리한다. 둘째,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 한다. 다섯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계획안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같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학교 인권교육의 현황은 어떠한지 인권교육 실태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 계획서에 나타난 인권교육은 유관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인권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은 반면,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경우는 3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생활 지도 시간’

(78.0%), '교과 수업 시간'(69.3%),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63.4%) 순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교사들이 조회·종례, 상담 시간이나 동아리 및 학급 회의와 같은 비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쌍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교과 수업 시간' (72.6%),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40.9%), '생활 지도 시간'(22.8%) 순으로 응답하였다. 김영지 외(2022)가 실시한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해 사회나 도덕 등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3.7%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35.8%,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11.4%,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4.1%, 중 76.4%, 고 54.4%)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정 외(2021)가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인권교육의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위정 외(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5.2%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시 주체로는 '담임교사' 49.4%, '외부 전문 강사' 26.6%, '교사와 외부 강사'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방식으로는 영상시청 수업이 69.0%, 교사 또는 강사의 설명과 학생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이 25.6%, 토론식 수업은 3.4%, 모둠 수업은 2.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상 시청이나 강의식 수업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자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인권교육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학교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권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 관련 지식 및 개념 습득과 같은 인지적 학습에는 초점을 두는 반면, 실제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실천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이 인지적 이해뿐 아니라 실천 능력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교교육에서 보다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나 시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인권교육 목표의 명확성이나 내용의 체계성,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이나 사회 등 인접 교과 수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권 자체의 교육 내용 체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교과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

둘째,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식 및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영상 시청이나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나 내용이 주로 인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인권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과 자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비교과 시간에 인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생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구성원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의 개념이나 목적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해 진행된 문헌 분석 결과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 내용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리, 내용체계 구성 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인권교육의 개념 및 내용 체계 구성을 위한 원리

이 연구에서는 「UN인권교육훈련선언」의 정의를 따라 인권교육을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개념화 하며,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원리로 총체성, 맥락성, 비판성의 원리를 제시 하였는데, 총체성의 원리는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감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 체계에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고, 맥락성의 원리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비판성의 원리는 인권 문제를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고 근대 인간상을 넘어선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 나. 기존 인권교육 내용 체계 분석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제시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권의 확장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인권 개념에 대한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이고 기능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 체계 구성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인권교과목 도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전에 국가 교육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 판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인권 교육 관련 내용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2022 개정 총론은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권교육을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권교육 관련하여 2022 개정 총론에서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후·생태환경 변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등 우리가 새롭게 마주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권 관련 가치, 인권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2022 개정 총론은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사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인권교육 내용 분석

2022 개정 각론에서 교과별로 인권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론에서는 인권교육이 바른 생활, 사회과, 도덕과에 치우쳐져 있었고, 해당 교과에서도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인권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과들의 경우에도 인권교육과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각론에서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총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정보 기술의 발달, 생태위기 문제와 관련된 성취기준, 내용 요소들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권의 변화와 확장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다루는 관점과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에 따라 교육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 라. 인권교과목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1차 델파이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내용,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문가들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비판이론, 탈식민주의 관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둘째, 전문가들은 인권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①인권의 의미와 특징, ②인권 문제의 역사와 영향, ③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④인권 의식의 확산, ⑤사회 행동 참여 등 총 5개 영역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지식보다는 실천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를 강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권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연구진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인권교육의 관점과 내용 체계안, 인권교과서의 단원 구성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첫째, 전문가들은 인권에 관련된 논의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며 다문화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을 포함한 대안적 관점을 고려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둘째, 전문가들은 1차 델파이조사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데 합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만,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각 대범주가 더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인권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용체계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로 내용이 심화·확장될 수 있도록, 배제적인 통념이나 관습적 표현에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문헌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최종적으로 구성·확정하였다.

**<표 1> 초등학교 대상 인권교육 내용 체계**

대범주	소범주	세부 내용
I. 인권의 의미와 유형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의 특징, 인권 관련 가치
	2. 인권의 유형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동물권과 인권, 기후위기와 인권, 정보권
II.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	1.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	아동,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 운동과 사회 변화
	2. 인권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인권 관련 기구의 출범과 노력, 인권 관련 국내·외 법과 제도
III. 일상의 인권 문제와 우리의 실천	1. 일상의 인권 문제	일상생활 속 인권 문제와 영향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천	일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사회 행동 참여, 실천과 성찰

이 연구에서 수립한 초등학교 대상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범주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인권의 의미와 유형'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이고 인권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본다. 학생들은 인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본다. 자유, 평등, 정의, 평화, 공존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인권 개념을 이해한다.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다문화주의,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에 대해 탐색한다.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인권의 유형이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 중이라는 것을 다룬다. 자유권(예: 신체의 자유,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에서 사회권(예: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유권, 사회보장권)과

집단권(예: 환경권, 평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으로 인권 유형이 다양화되어 왔다는 것을 탐색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AI, 전 지구적 생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 되는 인권 문제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미래세대와 비인간 자연으로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둘째, ‘II.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에서는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다룬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회 운동 사례를 통해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양한 집단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식의 노력에 대해 탐색한다. 학생들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신장을 위한 성공적인 사회운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결과의 일환으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왔다는 것을 살펴본다. 인권 관련 국내외 기구들(예: UN,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예: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률(예: 근로기준법), 인권 관련 제도와 정책(예: 헌법소원) 등이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III. 일상의 인권 문제와 우리의 실천’에서는 일상의 인권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대범주가 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대범주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인권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것으로 이 대범주의 내용은 확장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원리와 방법 등을 도출해본다. 소셜미디어, 대중매체, 거리부스 등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 방법 등이 내용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일련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이후 계획과 행동으로 연결해본다.



#### 4.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

전술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학년 간 발달 차이가 커 두 개 학년 이상을 한 집단으로 묶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군을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 개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 개발을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 6인을 섭외하여 학년군별(초등 3~4학년, 5~6학년)로 각 3명씩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을 운영하였고, 연구진 중 2인이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팀의 리더로 참여하여 문헌 연구 및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리된 인권교육의 관점, 원칙 및 내용체계를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개발에 반영하였다.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주당 한 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이 가능한 형태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구성 체제(대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단원 마무리 등)에 준하여 구성하되, 각각의 단원을 특정한 계기수업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여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이 흥미, 재미, 유의미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정 교과 위주의 분절적 인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통합적인 교수·학습 접근을 취하고, 기존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언어, 경험, 흥미, 요구, 지식, 선호하는 학습 양식을 고려한 포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IV.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교과용 도서 활용도 제고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관점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초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에 적절한 관점 및 내용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원들을 교과서 모델 개발진으로 위촉

하여 초등학교 3~4학년용 및 5~6학년용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진의 집단적 속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과서 모델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문연구자 집단과 현장 교원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과용 도서 모델의 완성도 및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문연구자 집단은 다양한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여 인권 교육 교과서 모델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교원들은 학교현장에서 체득한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재맥락화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즉각적이면서도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과용 도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이 폭넓게 활용되면서도 초등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단위의 정규과목으로 ‘인권’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실 그 동안의 인권교육은 일부 교과수업의 일부 혹은 창체활동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제한된 조건에서도 다양한 실천 사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지만, 단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년별 위계에 따른 체계성이나 내용의 연속성 및 깊이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한 관점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자율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개발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과용 도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서 모델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홍보용 전단 등을 학교에 배포하는 것과 함께,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인권교육의 관점 및 교과서 개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한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일회적이며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기존 인권교육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한계가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는다. 독립교과로서의 ‘인권’을 이전과 같은 관점과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채택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과 내용체계를 교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일상의 인권 문제와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지식 습득 및 일상에서의 구체적 실천과 행동이라는 일련의 흐름으로 구성된 교과서 개발의 취지 등이 교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직무연수 외에도 ‘인권’을 독립교과로 채택했거나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승인 단계에서 개최하게 되는 ‘교과용 도서 설명회’ 등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홍보 및 관련 연수를 진행할 때 교과용 도서 모델을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가 축적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교원들은 이 교과용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 사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공유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나 연구물은 물론이고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탑재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교과용 도서 모델은 현장 교원들의 실천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개방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정화(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3.
- 구정화, 박새롬(2019).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법교육연구**, 14(2), 1-33.
- 구정화, 송현정, 박새롬(2020).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위정, 김종우, 이가람(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자영, 이로미, 김진희(2019).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법교육연구**, 14(2), 63-92.
- 김혜진(2018). 도덕 교과서의 인권 친화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 개정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61, 159-192.
- 엄수정, 김성희, 장경훈, 문민지, 우라미, 조현희(2021).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국가인권조약집**. 사람생각.
- 이근영, 엄수정, 백병부, 문민지, 우라미, 장경훈, 최은경, 김지혜(2023).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쌍철, 김정아, 김미숙, 김진희, 이호준, 김영식, 김자영, 이현주(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선영, 권혜정(2017).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 내용의 계열 분석 및 구성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95-121.
- 이정연, 김명량, 권경림, 최보미(2020).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UNESCO(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결과 발표

최은경(수원 매원초 수석교사)

## I. 개발 개요

### 1. 기본 방향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년 위계를 고려한 교육자료가 필수요건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 관련 단체, 17개 시도교육청, 인권 시민단체나 교사 모임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인권 교육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권교육은 별도의 교과가 없어 저학년 부터 인권을 접하지 못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권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년군별 위계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학년군제에 맞게 3~4학년용, 5~6학년용으로 인정도서 기준에 준하여 우선 개발하였다. 학년군별로 3개 영역으로 크게 세분한 후 17차시 1단위를 고려하여 영역별로 ‘배움길’, ‘5가지 소주제’, ‘도움길’ 총 18차시로 구성하였다. ‘배움길’은 첫 번째 소주제와 함께 한 차시로 구성하였으며 ‘도움길’은 별도 차시를 배정하였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은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 정책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교과목’, 2021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제시하였다.

## 2. 개발 과정

### 가. 개발진 구성 및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진 2명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초등학교 현장 교사 6명이 영역별 단원을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인권교육 워크북 등의 인권교육 자료나 교과서 개발 경험, 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연구회나 관련 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사전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유럽평의회 인권교육자료, 프랑스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인권 부분, 국내 인권 교육을 위해 개발된 자료를 함께 공부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이하 모델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토대로 학년군에 적합한 인권 영역을 추출하였다. 관련 자료를 선정하고 활동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집필한 원고를 교차 검토한 후 환류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및 지도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 나. 전문가 검토 및 의견 반영

연구진은 개발진에서 집필한 교과서 및 지도서 초안을 1차 워크숍을 통하여 함께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인권교육 전문가(텔파이 조사 참가자)로 이루어진 검토진을 구성하여 서면 검토를 요청한 후 수정·보완 하였다. 연구진 검토 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보완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검토 의견 및 수정 보완 내용(일부)

대단원	소단원	협의 및 수정 요청 사항	수정·보완 내용
1. 서로를 존중해요.	1-1 소중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쪽. 가. 나는 소중한 「민수의 고민」 사례 관련해 ‘우등생’ 설정 지양, 대한민국 3-4학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상황과 소재를 다루었으면 함. 가급적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여러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아이들 일상에 맞달아 있어야 하나 사적 권리 침해 수준에만 머물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는 게 필요함. 맞벌이 부부의 불가피한 방임 사례 등을 제시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등생 설정 삭제</li> <li>맞벌이 부부의 상황을 설정</li> <li>다양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보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권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또한 비록 사적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권리 개념을 배우는 차시에서는 학생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까울 때 더 받아들이기 쉽고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봄</li> </ul>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6쪽. 나.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네 친구 이야기에서 도윤, 원호, 민아, 명수의 상황과 4가지 권리와 연결이 어렵게 느껴짐(상황에 있어 여러 가지 권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4대 권리에서 빠지는 상황은 없도록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임)</li> <li>사례에 등장하는 이름을 가급적 중성적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 고려(교과서 전체에 적용되도록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성적 이름으로 대체</li> <li>네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자기 자신을 포함)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하는 활동으로 수정</li> <li>54가지라는 단어 삭제</li> <li>유엔아동권리협약을 나의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무리함</li> </ul>



대단원	소단원	협의 및 수정 요청 사항	수정·보완 내용
1. 서로를 존중해요.	1-4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9쪽. 가.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초등학교 점심시간 사례 관련해 인간과 인간 권리 충돌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 권리 충돌 (인간이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아무 거나 다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충돌 상황 등) 사례, 초등학교 학생이 느끼는 공정과 공평 관련 사례(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더 주는 것과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한다는 것 등이 충돌하는 상황 등)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봤으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권리 충돌은 5~6학년군에서 다룸</li> <li>피구 금지의 사례를 통해 공정과 공평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서에 기입</li> </ul>
	도움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3쪽. 제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초등 3~4학년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고려해봤으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포스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학생 개인의 눈에 들어오는 협약이 있을 것임. 그 협약과 내 삶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li> <li>또한 이 자료를 도움길에 제시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이 수업 중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음</li> </ul>

다음은 델파이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10명에게 교과서 모델 1차 시안에 대한 검토이다. ‘인권교육 내용 체계 반영’,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 포함 여부’, ‘학생 연령에 적합한 활동과 자료 사용’, ‘학교 현장 활용성’, ‘기타 의견’ 등 5개 검토 기준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검토 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보완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과 같다.

〈표 2〉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수정 보완 내용(일부)

1. 인권교육 내용 체계가 잘 반영되었는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6	<p>사회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좀 더 시의성 있는 인권 관련 내용들을 담아내면 좋겠음. 가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을 인권의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안내해주었으면 함. 예를 들면 학교폭력, 학생인권 조례, 전쟁, 혐오 표현 등과 같이 뉴스에서도 접했던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비교해 보고, 여러 입장,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접하면 좋겠음.</p>	<p>3-4학년군에서 어린이의 눈으로 학교나 사회의 불편한 점을 찾는 활동이 있음</p>
2.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5	<p>〈5-6학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50 학생회장의 고민, 학생회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사가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고 공약을 당선자가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보임. 필요하다면 교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공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당선자가 표심을 얻기 위해 거는 약속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뒷받침되면 좋을 듯함.</li> <li>- p.86 튜베리의 연설을 예문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한 선정 인지 제고가 필요함 (튜베리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비건 푸드'를 사먹고 천만원 대의 동물 가죽을 사용한 의자를 구입하는 등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밝혀졌다. #나무위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함.</li> <li>- '제티 공약'에 대한 학생회장의 고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음. 학생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이며, 이 공약은 학생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했던 사례임. 그래도 교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발문은 중요함에 동의 해서 해당 질문을 수정하였음.</li> <li>- p.86 관련 - 출처의 신뢰도가 떨어짐</li> </ul>

3. 학생 연령에 적합한 활동과 자료가 사용되었는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3	<p>P.18 어린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는 무엇이 다를까요?</p> <p>해당 활동 이후에 ‘어린이들만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줘야 or 바라봐야 할까요?’와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합니다.</p>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은 어린이의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로 수정함</li> </ul>
4.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적합한가?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7	<p>&lt;3-4학년군&gt; 1단원</p> <p>p.4 문항 속에 어린이 권리의 뜻이 섞여 있는데 나. 내가 가진 권리라는 제목 아래에 ‘권리’의 뜻을 별도로 부각시켜 정리하면 좋을 듯함. “권리란, ~~~~을 말해요”</p> <p>p.6 태경의 말(짜활동, 내가 남자라서~)이 생존의 권리인지 참여의 권리인지 헷갈림</p> <p>p.6 ‘위의 네 친구가 ~ 연결해봅시다.’ 의 내용 구성 방식을 개선했으면 함. 이름과 권리를 한 개씩 연결하는 것이라면 좌/우로 나누어 선 굵기가 낮고, 중복 선택이라면 권리와 이름의 위치를 바꿔야 할 것 같음.</p> <p>p.5 보호의 권리 中 ‘차별과 폭력, 심한 노동 등 아동에게(전부 아동에 관련된 것이므로 삭제)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과 폭력, 심한 노동 등 위험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제안</p>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의 정의를 박스형태로 적음</li> <li>- 태경의 경우 참여의 권리, 보호의 권리 모두에 해당됨.</li> <li>- 실제 교과서를 만들 때 편집 가능</li> <li>- 제안대로 문장 모두 수정</li> <li>- 책임을 존중한다라는 말은 어색한 감이 있고 서로를 권리를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함</li> </ul>

5. 기타 의견(기타 표현이나 문장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롭게 제시)		
구분	검토 의견	수정·보완 내용
전문가8	[5-6학년교과서] <단원 내용 체계> <1.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단원에는 5개의 소주제가 있음. 각 소주제별로 '가', '나', '다'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3~4학년군이 '가', '나'로 구성된 것을 참고한다면 일관성있게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편집된 '가', '나', '다' 체계로 가져간다면 어떤 학습단계를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함. (굳이 3꼭지로 해야하는지 구분이 안됨. 가-나를 합칠 수 있는 단원도 있고, 나-다를 합쳐 하나의 소주제로 할 수 있음. 세 꼭지로 나누니 활동1,2,3의 전형적 학습틀로 보이기도 함.)	- 3,4학년군과 5,6학년 군의 내용체계에 대한 위계성을 위해 내용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음.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영역은 방대한데 이를 구현하는 분량은 한계가 있음.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참고자료들이 수록될 예정임.

## II. 주제 선정 및 단원 구성

### 1. 주제 선정

#### 가. 3~4학년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요',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 빛나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서로를 존중해요'에서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알고 누림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개인 혹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인권 문제가 '나'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라는 개념 렌즈로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실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마주했을 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나아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에서는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어린이의 세계, 어린이의 놀 권리, 어린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나이를 무기 삼아 어린이의 권리를 부드럽게 꺾어버리기도 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거두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는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른의 손에 자기 삶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어린이가 알게 모르게 겪었을 이러한 일상 속 차별과 배제를 사례로 하여 권리는 자기 손에 있는 것임을 알고, 어린이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였다.

셋째 ‘우리는 모두 빛나요.’에서는 주변의 성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차별 사례를 살피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눈으로 일상을 살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인간은 유아기부터 성 고정관념에 노출된다. 이후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고착되고 심지어 불평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아동기부터 성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습은 우선 다양한 일상의 사례를 살피며 고정관념을 알고, 그로 인한 피해를 인권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내재한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와 생활 문화 속 성 고정관념을 찾아봄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한다. 최종적으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존엄성을 위한 인권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 나. 5~6학년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이해하고, 갈등과 갈등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알고 누림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개인 혹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공식적으로 ‘학생자치회’라는 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언가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야 하고, 토의하는 방법을 배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지켜야 함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에서는 사회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비인간 동물 등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소수자를 시혜적인 관점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도록 소수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 소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인정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하였다.

셋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에서는 일상 속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디어와 언어 표현,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인권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삶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평등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하였다.

## 2. 단원 구성

### 가. 3~4학년

단원	주제	활동 내용
1. 서로를 존중해요.	1-1. 소중한 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는 소중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가진 권리
	1-2. 소중한 우리의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두 함께 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1-3. 권리의 친구, 책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만 누리는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두 함께 누리는 권리
	1-4. 서로의 권리가 부딪힐 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같은 상황, 다른 생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1-5. 서로 존중하는 우리 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두가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해
2. 어린이로 잘 살아가요.	2-1. 어린이의 세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도 힘들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와 어른
	2-2. 이린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처럼 씩씩하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가 만드는 이린어
	2-3. 어린이의 눈과 손으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의 눈으로 찾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의 손으로 만들기
	2-4. 지금 놀고 싶어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금 잘 놀고 있나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리들의 놀이
	2-5. 어린이 시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도 할 수 있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 시민
3.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3-1. 우리를 가두는 생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사람의 생김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자답게! 여자답게!
	3-2.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목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자니까! 여자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렇게 말해요

단원	주제	활동 내용
3. 여자 말고 내! 남자 말고 내!	3-3. 재미 속에 숨은 고정관념	㉠ 우리의 재미 속에 숨어 있어요 ㉡ 모두가 자유롭게 빛나는 음악회를 열어요
	3-4. 나의 빛을 찾아서	㉠ 그건 상관없어요 ㉡ 나의 빛을 찾아서
	3-5.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 우리는 모두 빛나고 있을까? ㉡ 너와 나의 빛을 찾아

## 나. 5~6학년

단원	주제	활동 내용
1.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1-1. 우리의 권리를 알아봐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 나에게 중요한 권리 찾아보기 ㉢ 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디자인
	1-2. 쾡!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생각해보기 ㉢ 김구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기
	1-3. 학생자치회는 어떤 기구일까요?	㉠ 학생회장의 고민 ㉡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것
	1-4. 의견을 모아 제안해요	㉠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 [모퉁이 토의] 우리의 의견 정리하기 ㉢ 학생자치회 '제안서'를 작성하기
	1-5. 우리가 참여하면 바꿀 수 있어요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 ㉡ 참여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 ㉢ 참여 활동 단계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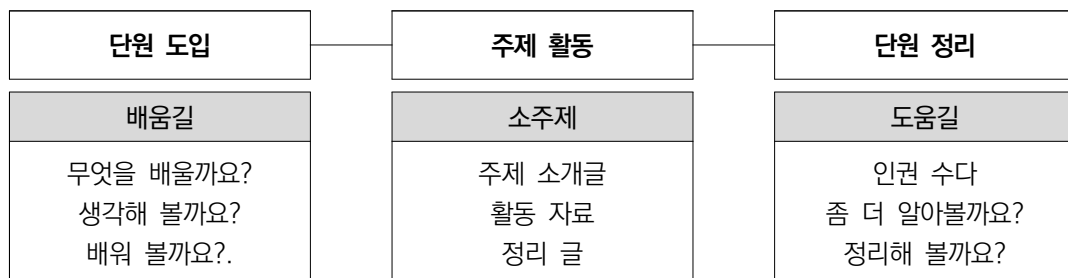


단원	주제	활동 내용
2.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2-1. 주위를 둘러봐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리는 달라요 <input type="checkbox"/> 나와 다름을 인정해요 <input type="checkbox"/> 다르지만 함께 살아요
	2-2. 조금 다를 뿐이에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input type="checkbox"/> 우리학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input type="checkbox"/> 모두 편리하게 이용해요
	2-3. 너무 빨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키오스크가 두려워요 <input type="checkbox"/> 이제 두렵지 않아요 <input type="checkbox"/> 만능 키오스크 만들어봐요
	2-4. 희망의 땅을 찾아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난민 어린이의 이야기 <input type="checkbox"/> 낯선 곳에 간다면 <input type="checkbox"/> 난민이 온다면
	2-5.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애완동물? 반려동물? <input type="checkbox"/> 권리를 잃어버린 동물들 <input type="checkbox"/> 동물의 권리를 위해
3.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3-1. 미디어 속에 그려진 세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input type="checkbox"/> 차별 장면을 바꿔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
	3-2. 일상 속에 녹아든 차별의 말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상에 쌓인 먼지 차별의 말 <input type="checkbox"/> 언어 감수성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말로 바꾸어 봐요
	3-3.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기후 소송 <input type="checkbox"/>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3-4. 기후위기와 불평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후위기 속 인권 <input type="checkbox"/>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우리도 고통받고 있어요
	3-5. 기후정의를 위하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신들이 미래를 훔쳐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기후 행동 피켓을 들어요 <input type="checkbox"/> 기후정의 캠페인

### III. 교과서 및 지도서 구성과 특징

#### 1. 인권교육 교과서

인권교육 교과서 구성요소와 구성 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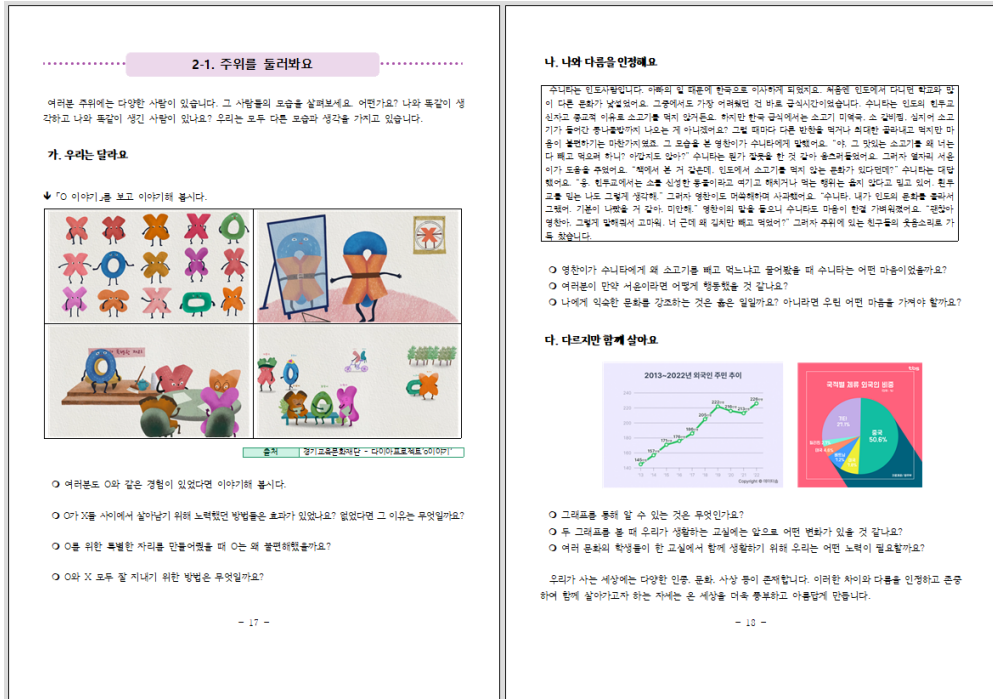
[그림 1] 교과서 구성요소와 구성 체계

먼저 ‘단원 도입’에 해당하는 ‘배움길’에서는 단원에서 배워야 할 소주제들을 보여주고 학습계획을 세워보는 ‘무엇을 배울까요?’, 흥미로운 자료와 간단한 발문을 통해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하게 하는 ‘생각해 볼까요?’, 단원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배워 볼까요?’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활동’에서는 단원마다 5개의 소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3~4학년은 소주제마다 2개의 활동 자료를, 5~6학년에서는 3개의 자료와 발문을 제시하여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학생의 의견을 잘 듣고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원 정리’에 해당하는 ‘도움길’에서는 ‘인권 수다’를 통하여 토의, 토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였으며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좀 더 알아볼까요?’, ‘정리해 볼까요?’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며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배움길 활동은 1차시 소주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차시별로 맞쪽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주제별로 주제를 소개하는 글과 정리하는 글로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구성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과서 구성 방식

## 2. 인권교육 지도서

지도서는 먼저 ‘단원 개관’을 서술하였다. ‘단원 개관’에서는 단원 구성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차시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단원 목표’와 관련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원 지도 계획’에서는 주제별 학습 제제와 주요 활동 내용을 기술하여 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원 평가 계획’을 성취 수준별로 제시하였고 평가 방법 및 평가 시 유의점을 포함하였다.

지도서는 전체적으로 배움길, 소주제, 도움길로 구성되어 있다, 소주제는 ‘배움 활동’과 ‘배움 정리’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는 문제가 많아 ‘예시 답안’을 청서로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활동 TIP’을 추가하였으며 단원 끝부분에는 ‘자료 인권+’를 통해 읽을 거리, 추천 도서, 관련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서 구성 방식은 [그림 3]과 같다.



## IV. 나아가며

필자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창의지성 교과서의 일환으로 개발된 초등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인권 단원을 집필하였다. 이후 몇 차례 개정판을 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내용 체계와 위계성을 갖춘 인권교육 자료에 대한 요구였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함께 하는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델 개발 연구자이자 인권교육 실천가로 살아왔다. 다양한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며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다졌고, 현장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자료를 5학년 교실에서 직접 실천해 보며 그 결과를 공유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서 ‘인권’을 학교 교과목으로 개설·운영하거나 각 교실에서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결과이다.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며 어린이 인권 해방 운동을 펼쳤던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당부와 실천이 여전히 절실한 오늘, 지금 우리 교실에서 ‘인권’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자주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연대와 환대의 힘을 기르는데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2]** 세종: 교육부.

엄수정, 김성희, 장경훈, 문민지, 우라미, 조현희(2021).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근영, 엄수정, 백병부, 문민지, 우라미, 장경훈, 최은경, 김지혜(2023).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최애영(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3~4학년)**. 파주: 해냄에듀.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조승주, 최애영, 최은경(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5~6학년)**. 파주: 해냄에듀.

장경훈, 최은경, 이상근, 이우철, 전세란, 신창훈, 강한아, 이태환(2023).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교과서 모델**. 국가인권위.

장경훈, 최은경, 이상근, 이우철, 전세란, 신창훈, 강한아, 이태환(2023).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지도서 모델**. 국가인권위.



#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장경훈(용인 동막초)

## 1.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한 내재화가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 제도에서부터 인권 의식은 높아졌으나 그와 더불어, 더욱 정교해진 인권 탄압과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가정과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1차 책무임에도 부모나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하다. 최근에는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갑질은 잘못된 인권 의식을 이기심의 방패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인권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는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대표적 오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학교급별로 학년 위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2019년에 설립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의 집단적 작업의 결과로 2021년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필두로 산재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통해, 결핍이 아닌 풍요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원칙(포용과 형평성, 협력, 연대, 집단적 책임과 상호 연결성)을 기반으로 평생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ur)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2050년을 준비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대한 약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로 강화해야 하며, 교육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인권을 증진하는 시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믿을 만할까?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한다(이쌍철 외, 2019).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 방식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인권의식 또는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실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이정연 외, 2020; 이쌍철 외, 2019). 이정연 외(2020)가 실시한 2020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인권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권교육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3.06점(4점 기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외부강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그나마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교사가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학생 지도와 같은 일반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을 인권교육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병열, 2012).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권교육이 주로 지식 전달에만 치우쳐 학생들의 실천으로까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을 추상적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김자영 외, 2019).

유엔(UN)은 2003년에 ‘초등 및 중등학교 인권교육 학습 안내서(ABC: Teaching Human Rights -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를 발간하며,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리를 제안하였다. 이때, 인권교육은 기존 학교 과목에서 다루거나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안팎의 교육을 통해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과와 부분으로서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 속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UN, 2003). 유병열(2013)의 연구에서도 교과교육에서의 충실한 인권교육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교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들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행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인권교육과 같은 민주시민 교육의 범주에 속해있는 주제들은 특정 교과에서보다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더욱 민감하다. 시대별로 인권이 자리한 위치보다 현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문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에 대한 고민거리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인권은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일제 침략기 우크라이나로 강제 이주되어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의 생존을 무릎 쓴 탈출과 인권침해, 그 가족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나면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2019년 한국 청소년들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으로 인한 국경 통제와 격리, 학교 등의 시설 폐쇄, 개인 정보 공개 등은 일부 집단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외국인, 유색인, 저임금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은 건강권에 대해 더욱 더 차별적인 보호를 받았고,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 교육권 침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이장희, 2021).

## II. 교육과정으로 녹이는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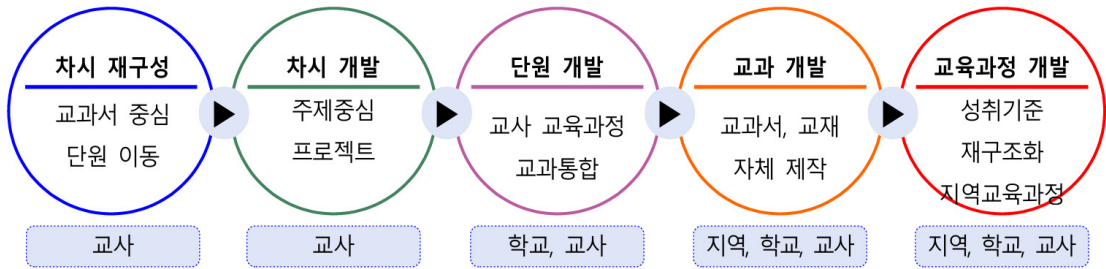
### 1. 교육과정 재구성

국가 수준교육과정의 정해진 시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존 교과와 벽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교사가 통합하여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절적 교과 수업에 익숙한 교사들이, 힘든 여건에서 의지를 담아 인권교육을 해 나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그 결실이 기존 교과와 벽을 넘어서는 ‘지역교과’나 ‘학교교과’의 등장이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배움은 국가에서 정하는 내용, 즉, 기존교과의 틀만으로는 온전히 담길 수 없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교과’를 생성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교과, 학교교과들은 해당 지역, 해당 학교 학생들의 삶에 기반하여 생성되었지만, 출발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국가에서 정한 교과 역시 함께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선정된 내용, 생성된 교과들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 없는 이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과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유성열, 2020).9)

이를 기초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여기에 언급되는 교과 개발은 기존의 교과 형태가 아니라 교사, 학교,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순체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이 진화한 형태다.



[그림 1] 교육과정 재구성 위상 변화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교과, 지역교과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문제에 연관지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제시한다면 지역 교육을 특색있게 편성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영역 내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을 학습의 연장으로 바라보고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속성을 가지고 주제에 접근해 보고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주제 중심 통합교육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묻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학기당 한 두 시간의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지식 중심의 주입식 인권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과 교과를 통합하는 과정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대강화, 분권화와 연동되어 교과 구조 개선 과정에서 감축된 시수를 활용하여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 시수 감축은 주 5일제 적용에 따른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교과 통합을 통한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기존 교과 시수 단위를 변경하여 17차시 1단위를 15차시로 축소하고 교과 시수 중 20%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주제 중심 통합교육을 실시하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이어져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 교과목,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이 지역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그 이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학년별 최대 64시간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만의 과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풍부해져야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인권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다. 인권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교재나 교과서, 수업 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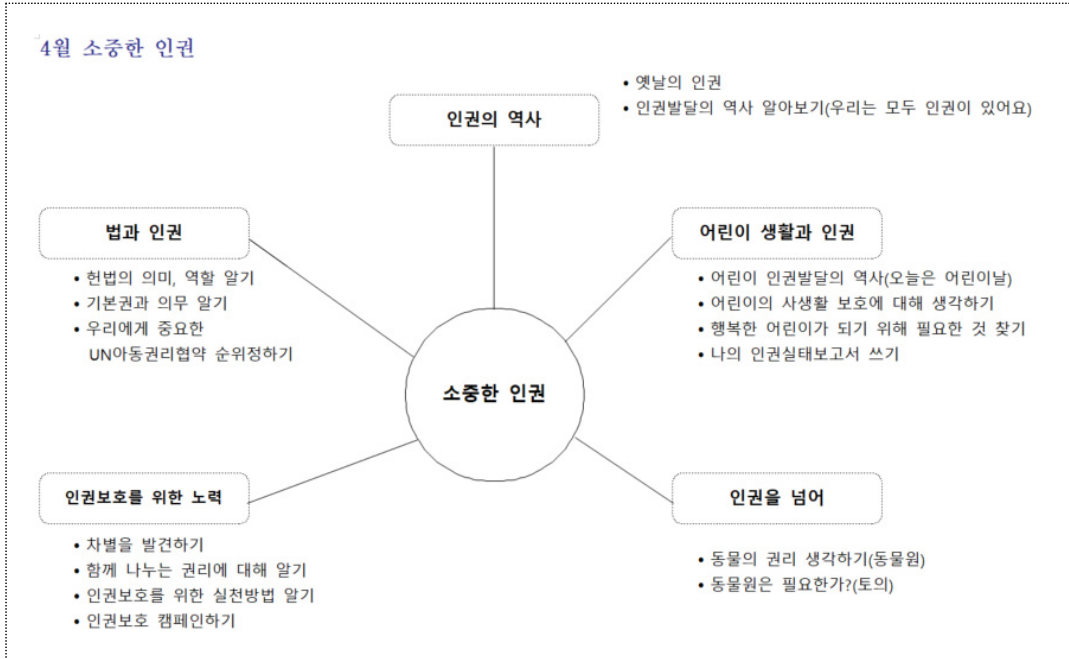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교과서를 통하여 교육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4년 「더불어사는 민주시민」교육감 인정 교과서를 초·중·고등학교용으로 개발하여 이러한 주제중심 교과통합의 모델을 현장에 제시했다. 그 중 초등학교 인권 단원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더불어사는 민주시민」(2019 개정판) 인권 교육내용 초등학교 위계**

학년	단원	소단원	주제
초등 3~4학년	4. 인권 (우리는 소중해요)	소중한 나와 너	존중
		우리가 가진 권리	인권
		아름다운 우리	권리 보호
초등 5~6학년	4. 인권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나와 너의 사생활	자기 결정권, 사생활 보호
		함께 나누는 권리	권리와 책임, 네티켓
		행복한 어린이	건강한 몸과 마음 지키는 방법

이후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하여 초등 5학년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인권교육 내용이 단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인권교육은 5학년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학년 위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22개정 교육과정 또한 이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학년 단위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교과통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사례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2019년 당동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제중심으로 교과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소중한 인권 생각그물(당동초 5학년, 2019)

### 3. 학교 교과목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사교육과정 현상을 수용하여 혁신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자율의 교과목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제된 교과목을 ‘학교교과목’이라 명명하였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다. 선언만 있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부재하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의 일부를 학교로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표 2>는 무주초에서 학교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년별 위계를 갖추어 운영한 인권교육의 사례다. 학년별 위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전체가 교육과정 편성의 연계성을 고민하며 운영하여 더 큰 의의가 있다.

〈표 2〉 학년별 단원 및 성취기준(전북 무주초 학교교과목 ‘인권’ 2023)

학년	주제	성취기준	배정 교과 (차시)
1	〈인간존엄성〉 서로 다른 ‘나’가 함께 살고 있어요.	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자신감있게 소개한다. ②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국어(4) 바생(6)
	〈인간존엄성〉 나도 할 수 있어요.	① 서로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역할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실천한다. ②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국어(4) 바생(3) 슬생(3)
2	〈인간존엄성〉 내가 나라서 소중해요.	①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②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결정한다.	바생(3) 즐생(5) 슬생(2)
	〈다양성〉 우리 모두 소중한요.	① ‘틀림과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국어(2) 바생(2) 즐생(3) 슬생(3)
3	〈아동 인권〉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① 인권의 의미를 바탕으로 나와 친구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	도덕(10)
	〈가족 인권〉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요.	① 편견과 성고정관념의 의미를 알고, 성역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다. ②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가정 내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	사회(10)

학년	주제	성취기준	배정 교과 (차시)
4	〈혐오표현〉 말이 칼이 될 수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알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li>②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항하는 방안을 실천한다.</li> </ul>	국어(10)
	〈노인 인권〉 어르신, 평안하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노인 인권을 인식하고, 주변의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다.</li> <li>② 우리 지역 노인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li> </ul>	사회(10)
5	〈장애인 인권〉 장애, 그냥 조금 더 불편한 것 뿐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li> <li>②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li> </ul>	사회(10)
	〈다문화 인권〉 다문화, 다양해서 좋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li> <li>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li> </ul>	국어(7) 도덕(3)
6	〈노동 인권〉 일하는 사람의 소중 함, 우리가 지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노동과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약자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li> <li>① 노동 인권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li> </ul>	국어(10)
	〈학생 인권〉 정말 ‘우리’ 학교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 인권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인식하고, 우리 학교의 학생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li> <li>② 학생 인권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li> </ul>	사회(10)

#### 4. 학교 자율과정(경기 덕장초 5학년 2023)

주제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			
1학기	생명이 자라는 학교 텃밭	2학기	어린이 생태 시민	해리엇(온작품 읽기)
운영	실과 2. 생활과 동식물 / 점심시간	운영	학교자율과정 24시간	한윤섭 작가와의 만남

##### (1학기)생명이 자라는 학교 텃밭

차시	일자	활동	내용	준비물
1~2	2023.04.25.	도시농부와 학교 텃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li> <li>• 텃밭디자인하기</li> <li>• 엽채류 모종 심기</li> <li>• 반려식물 가드닝</li> </ul>	엽채류 모종 모종삽, 반려식물 가드닝 재료
	04.26. ~ 05.22.	잎채소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초 제거</li> <li>• 물주기</li> </ul>	
3~4	2023.05.23.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텃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채소 수확하기</li> <li>• 열매채소 모종심기</li> <li>• 지주대 세우기</li> <li>•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li> </ul>	열매채소 모종, 마요네즈, 패트병, 수확봉투
	05.23.~ 07.14	판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하여 가져가기</li> <li>• 수확팀, 판매팀, 배송팀 구성하기</li> <li>• 학교 텃밭 농산물 판매하기</li> </ul>	
	2023.11.10.	기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기부하기</li> </ul>	



## (2학기) 어린이 생태 시민

- 학교자율과정 2학기 24시간

주	단원명	차시	학습주제	비고
2	1. 함께 살아 볼까요?	1/6	2학기 생태전환교육 계획 세우기	
	1. 함께 살아 볼까요?	2/6	동물들의 지구 살이	
3	1. 함께 살아 볼까요?	3/6	볼 수 있는 - 볼 수 없는 동물	
	1. 함께 살아 볼까요?	4/6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4	1. 함께 살아 볼까요?	5/6	멸종위기 동물생태 보고서	
5	1. 함께 살아 볼까요?	6/6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6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1/13	지속 가능한 미래	
8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2/13	지속 가능한 미래	
9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3/13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10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4/13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11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5/13	우리 마을 생태지도	
12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6/13	우리 마을 생태지도	
13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7/13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14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8/13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15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9/13	반려동물 탐구생활	
16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10/13	함께 GREEN 하루 일기	
17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11/13	소중한 물, 고마운 물	
18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12/13	습지 생물	
19	2.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	13/13	기후 위기 찾아보기	

주	단원명	차시	학습주제	비고
20	3. 지구와 함께하기	1/5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	
	3. 지구와 함께하기	2/5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2	
	3. 지구와 함께하기	3/5	생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실천	
	3. 지구와 함께하기	4/5	생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실천	
	3. 지구와 함께하기	5/5	생태전환 교육 정리하기	
	총시수	24		

## 5.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 간의 민주적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공동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축해가는 과정도 드러나야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권, 노동, 평화 같은 영역들과 민주시민교육의 근본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근본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교 행사나 학급교육과정 안에 부분적으로 담겨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비중은 매우 적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인권 의식, 평화 감수성, 주권자의 권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교과수업을 풍부하게 하는 보조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모델 자체가 주제와 그 주제를 위한 자료와 발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에서도 인권 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교과 수업에서 여러모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

둘째, 2025년에는 3~4학년, 2026년에는 5~6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중심 교과 통합, 학교 자율시간의 다양한 형태로 인권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은 학교 자율시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학년 군별로 세 가지 단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단원은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차시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한 주제를 한 차시에서 여러 차시로 나누어 수업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셋째,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특정 학년에 집중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학년별로 단위를 나누어서 매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게 좋다. 인권교육의 시작은 어릴수록 좋은데 1~2학년이나 유치원까지 발달단계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에서 받게 된 인권교육이 중등과정에서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 모델이 초등학교 저·중학년용,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권 관련 각종 기념일에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 여성의 날,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생물 다양성의 날, 세계 침략 희생 아동의 날,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세계 난민의 날, 세계 청소년의 날, 세계 빈곤퇴치의 날, 세계 어린이의 날, 세계 인권의 날, 세계 이주민의 날, 세계 인류 연대의 날 등 국제기념일과 관련하여 계기교육을 함께 펼치는 것도 좋겠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요구, 17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별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의 인권문제가 반영된 특색있는 인권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 Ⅲ. 나아가며

2016년 EBS 다큐프라임 제작진과 함께 ‘감정시대’라는 5부작 다큐 제작을 위해 ‘노동인권’과 관련된 수업을 촬영했었다. 코미디 빅리그 ‘갑과 을’의 한 부분을 시청한 후 갑을관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물어 봤다. 음식점 주인과 에어컨 수리 기사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갑을 관계에 대해 5학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수업시간 활동으로 아이들은 식당에 일하는 사람과 손님 입장이 되어보았다. 자연스레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모멸감이라는 어려운 말도 나누었다.

몇 시간의 인권 수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된 걸까? 매 수업 시간마다 인권으로 도배하고, 수학에서도 인권을 말하고 국어에서도 인권을 말하며 모든 수업시간과 학교생활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그제서야 민주시민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는 아이들에게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이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준비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다. 교실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 나누며,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함을 넘어 아늑함을 느끼며 배움을 통해 행복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의 지혜, 과학적 지식과 도구, 동료의 생각을 더해 새로움을 찾아 나가는 즐거운 여정이어야 한다. 교사가 본을 보이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시민적 자질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협력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김성천 외(2021). 군포·의왕의 지역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덕장초등학교(2023) 2023학년도 5학년교육과정.
- 무주초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과목 지도서: 민주시민교육 <인권>.
- 엄수정, 김성희, 장경훈, 문민지, 우라미, 조현희(2021).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병열. (2012).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3(2), 51-71.
- 이근영, 엄수정, 백병부, 문민지, 우라미, 장경훈, 최은경, 김지혜(2023).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 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쌍철, 김정아, 김미숙, 김진희, 이호준, 김영식, 김자영, 이현주(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장희. (2021).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인권법평론, 26, 37-78.
- 이정연, 김명랑, 권경림, 최보미(2020).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최애영(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3~4학년). 파주: 해냄에듀.
- 장경훈, 김형태, 시원혜, 양세미, 윤영섭, 이경옥, 임성무, 정현이, 조승주, 최애영, 최은경(2021).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5~6학년). 파주: 해냄에듀.

# 토론

1. 김자영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
3. 최경란 (인권교육활동가연구센터 조각보 대표)
4. 성나래 (서울 당중초등학교 교사)



# 토 론 문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 1. 들어가며

연구 결과물을 접하고 무엇보다 먼저 든 감정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급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기는 하나 사회, 도덕 등 일부 교과를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고,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교과에서 두루 다루라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실상 모든 교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있을 만큼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에서 인권교육 과목 개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과서와 지도서 모델이 개발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교과에서 분절적으로 실행되어 온 인권교육, 끼워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실행되어 온 인권교육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인권교육이 실천되는데 유용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연구진께서 개발하신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 향후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서 모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토의·토론하며, 실천·행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교과서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교과서라기보다는 활동지 모음에 가깝다는 느낌도 줍니다. 이러한 형식은 분명 장점도 크나, 제시한 교과서 모델만으로는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다루는 주제의 경우, 교과서 지면상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 실제 수업 진행 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거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4학년군] 교과서 중 [3-1. 우리를 가두는 생각  남자답게! 여자답게!] 부분은 다른 주제들(3-2, 3-3 등)와 함께 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제목, 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된 제목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3-4. 나의 빛을 찾아서  나의 빛을 찾아서, 3-5. 너와 내가 빛나는 세상을 위해  너와 나의 빛을 찾아] 부분은 너무 유사한 제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각 주제, 활동이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주제, 활동 내용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5~6학년군] 교과서 중 3단원은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개의 주제(3-3.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3-4. 기후위기와 불평등, 3-5. 기후정의를 위하여)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형태로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지도서 모델은 지도상의 유의점, 활동 팁, 예시 답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인권 과목을 처음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도서 앞부분에 인권 과목의 취지와 방향, 수업 설계 및 실행 시 유의사항 등 과목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내가 포함되면 더욱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 3. 초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진께서 개발하신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이 모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인권 과목 개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인권 과목의 신설,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인권 과목의 개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목 개설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권 과목 개설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목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인권 과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같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교사에게도 적절한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특정 과목을 전담하여 수업을 하기보다는 한 학급을 맡아 여러 과목의 수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과목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과목 수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전 교육으로서의 연수를 제공하고,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독립된 인권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는 기존의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보조 교재로 교과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서 개발한 교과서의 각 단원, 주제가 다른 교과와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관련 기념일에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각 단원, 주제가 어떤 기념일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지도서에 교과서 활용 팁의 형태로 제시하고, 기념일 시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홍보한다면 보다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인권 과목의 개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친인권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인권 수업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 과목 개설과 함께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자치회를 통해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이 의미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는 학교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권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여러 활동이 학급, 학교 안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세부적인 연계 방안이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인권사무소와 학교, 인권 수업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4. 나가며

초등학교 인권교육 과목개설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인권이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첫 연구로 의미가 크고 기대 역시 큼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 및 활용 관련 의견

우필호(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1. 학교자율시간 활용 초등 인권교육 교과서 개발 시의적절

-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제12조, 「초·중등 교육법」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생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9조(학생인권교육)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주로 답입교사가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교육 지도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단편적인 수준과 내용의 형식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교육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2시간 분량의 한정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나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선 교육청에서 인권 관련 고시 외 교과목 신설 및 도서(교과서) 개발 경험은 서울시 교육청의 중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과목 신설과 도서 개발의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는 주로 노동인권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지도서나 참고 교재, 영상자료 등을 일부 개발하여 교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생활 지도 시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오고 있는 수준으로, 독립적인 인권 교육 교과서를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

- 다행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까지 학교장이 인권교육을 위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여 진행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교과서 개발은, 그동안 학교 인권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그동안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 인권교육의 주요 근거가 되어 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남도예 이어 서울시에서도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절실하고 의미 있다고 할 것임

## 2.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교육과정) 및 도서 개발 관련 의견

- 이근영 연구위원과 최은경, 장경훈 교사님 발제 내용의 전반적 취지에 적극 공감함. 따라서 여기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함
-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은 그동안의 여러 인권교육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초등학생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 유의미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은 적절해 보임. 다만,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개발하고 있는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에 학생들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교 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차후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 특히 5~6학년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생활 속의 구체적인 권리들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 및 휴식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참여와 자치의 권리 등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음

- 또, 소수자의 차별이나 혐오와 관련하여, 5~6학년 2-1, 3-1 단원을 교육할 때 이러한 차별 반대가 각자의 가치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일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해 보면 어떨까 함
  - 기타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5~6학년 1단원 1-1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 지도서에는 소속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함께 읽어 보는 것도 권장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또 5~6학년 2단원, 3단원에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강조되거나 생성 변화하는 인권 관련하여 키오스크 사안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안과 함께, AI를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나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 있음

### 3. 인권교육 교과목 신설 및 도서 승인과 이후 활용 관련 의견

- 교과목 승인 절차와 인정도서 등록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 필요
  - 현재 일선 학교에서 인권교육 자료가 없어서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님. 교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과 지난해 서이초 사안 이후 일부 교원들의 반발, 교원들의 인권의식 증진 등을 해소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부가적 대책이 필요함
  - 단순히 인권교육 교과목 신설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 학교를 섭외하여 신설과목 교육과정(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후 교과서 등록 승인 절차는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교과목 및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소통 및 인권위의 지원이 필요함
- 인권교육 교과서가 개발 승인되었더라도, 일선 초등학교에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인권교육 교과서가 만들어져도 일선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사전 준비 및 홍보 등 강화 필요
  - 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도 교사들이 반대하면 일선 학교에서 인정교과서로 선정되기 어려움.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및 교육진행을 위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명회나 홍보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담임교사 연수(교재 활용), 교과서 구입비 등 학교 운영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교과서의 활용은 인권교육의 집중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학기초 진행하는 ‘상호존중 관계 맺기 활동’과 연계하하고, 풍부한 예시와 사례를 통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또 교육 이후 관련 학생들 자율적인 행동지침이나 학내외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이러한 부분들은 인권교육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일선 학교들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 검토 되고 보완되면 이후 수용 및 활용 과정이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 인권사피엔스

최경란(인권교육활동가연구센터 조각보)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코로나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AI사피엔스 최근 어떤 사건이나 변화의 기준이 되는 인류를 지칭할 때 사피엔스(지혜로운 사람 또는 생각하는 사람)를 붙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교과목으로 개설이 되고 나아가 유아기부터 즉, 전 교육과정에서 기본학습으로 교육이 된다면 인권사피엔스 시대의 개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 80년대, 30~40년 전 학교에선 ‘인권’ 또는 ‘인권교육’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등생으로 인정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당연한 대우라고 받아들이면서 인생 성공을 위해 공부를 하고 진학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삶의 목표를 세웠던 것 같다. 물론 지금의 학생들을 볼 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경제적 목표가 더 크게 설정 되어있는 것을 학교 현장에 교육을 갔을 때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사회교과에서 또 도덕교과에서 인권을 단원으로 배우고 있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나’가 ‘돈이 많은 나’로 해석되고 돈 많은 나로 살기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의 삶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라고 글로 말로는 외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권을 향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안타깝고 먼저 산 세대로서 학생들에게 물질만능주의를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

학교 현장으로 인권교육을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서 ‘인권이 무엇인가요?’일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요.’라고 답을 해 준다. 그 답변에 다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오늘 나는 어떤 권리를 누렸(향유)을까요?’라고 다시 묻게 되면 돌아오는 답은 어김없이 ‘인권이요.’였다. 무한 반복되는 말처럼 정의만 오가는 장면에서 인권교육활동가로써 반성하게 되고 인권교육을 돌아보게 된다.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해 이론적 정의만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알아차릴 수 있도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해 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오고, 친구를 만나고, 안전하게 길을 걷고, 부모님과 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등의 일상이 우리의 인권적 삶이라는 것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 따돌리지 않는 혹은 차별되는 일이 있을 때 연대해서 대항해 주는 생활이 인권을 향유하면서 사는 삶, 그 밖에 누군가가 쥐어주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그리고 도덕교과에서 단원으로 배우는 ‘인권’은 학생(아이)들의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단원평가를 위한 지식평가의 한 과제로 자리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인권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나아가 유치원부터 교육을 한다면 삶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습득되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리를 알아가고 권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권사피엔스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가 실현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연구 개발한 학교자율시간에 교과용 도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살펴 볼 때 초등학교 전 학년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것이 보여진다. 물론 더 발견하고 확장시켜야 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에게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은 팔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

학교현장에 인권교육을 갔을 때 5,6학년에게 반장선거 그리고 전교회장 부회장 선거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다. 반장선거에서는 반장의 공약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태반이고 전교회장단 선거에서는 학생대표를 뽑는 일에서 저학년들은 배제되는 일이 아직 많은 학교에서(본 발제자는 약10년간 전교생이 50여명 남짓한 소규모 학교였던 1개의 학교에서만 전교생이 학생대표를 선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행해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는 일에 1/2 또는 1/3의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서 후배들은 나이가 어려 전교회장을 뽑는

일을 잘 모르고 생각을 못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러한 단편적 현상들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나이가 어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결정을 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세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후배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선배들이 찾아 낼 수 있도록 사고하게 하는 교육이 인권교육이 되어야 할 것 일면일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교육이 전 학년, 전 생애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는 어른들에게 인권사피언스로 인권을 알려주고 가족의 삶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자유, 존엄, 평등이 실현되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인권적인 상황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2010(10.05.), 2011(10.28.), 2012(01.26.), 2013(07.12.), 2020(07.10.), 2021(01.08.) 이 숫자들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날짜이다. 그리고 2024.04.23.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2024.04.26.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피로감을 더해 주는 갈등에서 벗어나 당연한 학생의 권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충남의 한 학교에 학부모인권교육을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비록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우리의 정신에 마음에는 학생인권을 지켜야 하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였지만 끝까지 지킨 것 처럼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에게 인권감수성을 기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에서 전 학년에 걸친 교과용 도서를 활용해 교과목을 개설 하는 것이 기존의 인권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제로 본다.



# 교과용 도서 모델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시간’과 ‘방법’ 차원에서

성나래(서울당중초등학교 교사)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권교육 교과목 개설이 가지는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이유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 충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막연함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며 학교에서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며,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상황은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희석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학교 내에 자리 잡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첫 번째로 제안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에 대해 한다.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 모델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잘 홍보하고 보급한다면 꼭 교과목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교 자율과정, 자율활동, 교과와 연계한 인권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 활용하여 인권교육의 관점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다.

두 번째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에 관한 내용이다.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은 3~4학년군, 5~6학년군의 2종, 각 학년군별로 3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군별 대주제는 계열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해당 교과용 도서는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나 5학년

사회, 도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 내용과 차별점을 가진 부분들이 있었다. 어린이라는 현재의 상태에 주목한 점, 어린이의 눈으로 어린이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 점이 좋았다. 이런 접근은 학생 주도성을 신장시키는 인권교육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더불어 인권을 개별권리로만 다루거나, 권리침해의 구제라는 차원에서 법리주의의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고 권리 간의 연결성에 주목하거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인권의 다양한 관점과 개념을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사회에 일원으로서 개인이 책임감을 지고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여야 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면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인권교육을 하니 자기 권리만 알고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학생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교권이 무너진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인권을 인간 개별의 권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양성, 동물권, 기후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인권이 인간의 개별 권리를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인간의 권리를 넘어 지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의 권리까지로 확장되고 있는 개념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세계의 인권 담론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세계의 인권 담론 흐름과 인권교육의 관점과 맥락을 가르치는 교사도 이해하고 숙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인권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맥락 없이 인권교육을 할 경우 부작용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관점이나 맥락을 제공할 가이드로서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 모델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하여 완성도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제자가 제안할 교과용 도서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과수업을 풍부하게 하는 보조 교재로서 교과용 도서 모델을 활용해 보니 유용한 점이 있었다. 5학년 사회와 도덕 교과에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교과용 도서 모델에서 찾아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았다. 실제 수업 후 느낀 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나.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다음 네 친구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연우**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누구와 놀아야 할지 전부 부모님이 결정해. 부모님은 내가 아직 어리다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진솔**  
학교 운동장에 있던 축구 골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대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고 있어. 무엇보다 우리 생각을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태경**  
내 짝 인하는 짝활동을 할 때마다 짜증을 내. 내가 남자라서 이야기하기가 싫대.

**타냐**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난 집에서 동생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며칠 전 동생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 못 데리가고 너무 힘들었어.

위의 네 친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찾아 연결해 봅시다.

- 생존의 권리
- 발달의 권리

- 연우
- 진솔

- 태경
- 타냐

- 보호의 권리
- 참여의 권리

위의 네 친구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내가 선택한 친구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아래 빈칸에 써 봅시다.

내가 선택한 친구 :

누가	필요한 노력
○○ 자신	

###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11쪽]

네 친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찾아 연결 짓는 활동에서 많은 학생이 한 사람에게 하나의 권리만 연결되는지를 질문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상황이 한 가지 권리로만 연결되지 않으며, 여러 개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친구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학생들이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의 답변〉

**타냐의 경우**  
타냐 자신 : 집에서 동생을 잘 돌보고 부모님께 빨리 와달라고 부탁한다.  
부모님 : 너무 바쁘다면 주말이라도 동생을 병원에 데려간다.

**연우의 경우**  
연우 자신 : 어떤 공부를 할지 부모님께 같이 결정하자고 말한다.  
부모님 : 가족회의를 만들고 연우의 의견을 들어준다.

이처럼 교과용 도서 모델에서는 기존 사회나 도덕 교과서의 활동보다 훨씬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의 다룸으로써 나의 삶에서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 나. 내가 가진 권리

민수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의논해 봅시다.

보기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	충분히 높고 쉼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식사	내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을 기회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

-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 (보기)에서 굵라 ○ 표시해 봅시다.
- (보기) 중 ○로 표시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기) 중 ○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민수와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 [인권교육 교과용 도서 모델 9쪽]

먼저, 각자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모둠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통적으로 민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듬의 의견을 모아 학급 전체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충분히 쉬고 놀 시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식사, 내 상각과 의견이 존중받을 기회를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선택했다.

개인적으로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 자신만의 방을 선택한 학생도 있었으나 모듬에서, 전체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권리 보장을 위해 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논쟁적으로 다루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인권적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처럼 기존 교과수업의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으나, 인권교육을 중점에 두고 의미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학년별 계열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래의 시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학교 자율시간’과 ‘교과용 도서’로 실천하는 인권교육 토론회

---

**발행일** 2024년 6월 26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02) 2125-9854      **FAX** (02) 2125-0917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 2278-1990

---

**ISBN** 979-11-7214-014-4 93370

가            가  
(            ,            ,            ,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교육기획과  
Tel : (02)2125-9854, Fax : (02)2125-0917 <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9-11-7214-014-4 9337